

뺱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 <용부가> · <복선화음가> · <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

길진숙*

<차 례>

1. 조선후기의 일탈형 여성 인물
2. 일탈형 여성인물의 욕망 충동과 그 성격
3. 조선후기 여성에 대한 시선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의 새로운 인물 군상을 대변하는 존재이자, 변화된 세대를 반영하는 '일탈형 여성 인물'의 욕망 충동과 그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청가>의 뺱덕어미, <용부가>의 저부인과 뺱덕어미,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는 조선후기의 새로운 여성 일탈형 인물들로 이들의 욕망과 일탈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고찰하였다.

<심청전>, <용부가>, <복선화음가>의 일탈형 여성들은 모두 여성적 일상을 벗어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는 사회적, 가족적 규범이나 속박을 거부하며 무절제한 욕망의 발산으로 치달았다. 이들 일탈형 인물들은 여성적 일상에 안착하지 못하며 가족 윤리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비도덕적이고 음란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생산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하며 감각적인 쾌락과 욕심만 채우려는 성정이 나쁜 여성들로 그려졌다.

<심청전> · <용부가> · <복선화음가>의 작자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시집가문에 융합되지 못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여성은 본성도 고집스럽고 심술 사납고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음란하고 식탐이 많고 반사회적이라고 보았다. 작자들은 일탈형 여성인물에게 게으르고 소비적이며 가정을 몰락시킨 자라는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시켜 이들 여성들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완벽한 악행과 불행은 “결혼한 여성들은 현숙하고 조신하면서 동시에 부지런하여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우고 가문을 빛내야 한다”는 이 시대의 부덕을 각인시켜 주기 위한 부정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이 시대 양반 여성들은 중세적 가정 혹은 가문으로부터 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가정관리’의 논리 안에 갇혀 있었다. 여성은 가정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가정의 살림과 가정 내의 인간관계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적인 시선은 소비하고 방탕하고 게을러서 가정 경제에 혹은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여성들에게 주어졌다. 소비하는 주체로서 가정을 몰락시키는 여성을 풍자·비판하는 이면에는 여성이 가정 경제의 실질적 주체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세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조선후기, 일탈형 여성 인물, 뽕덕어미, 저부인, 괴똥어미, 욕망, 본능, 일탈

1. 조선후기의 일탈형 여성 인물

조선후기 문학사에는 특별한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홍부가>의 놀부, <우부가>의 개똥이·뽕생원·핑생원, <심청가>의 뽕덕어미, <용부가>의 저부인·뽕덕어미,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 이들은 모두 거침없이 욕망을 발산하고 기성의 윤리를 파괴하는 ‘품행제로’의 초상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악인형 인물’의 계보에 속하지만, 일반적 악인과는 많이 다르다. 이들은 음모와 범행으로 주인공을 해치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악한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중적이고 허위적인 복곽선생·동리자·배비장과 같은 ‘풍자적 인물’의 계보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부도덕하고

윤리의식이 결핍된 자들로 부정적 인물형상의 독립된 계열을 이룬다. 조선후기의 새로운 인물 군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악인형 인물'로서 부르기도는 사회적 윤리나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형 인물'로 규정하는 것이 이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더 적합하다.

이 일탈형 인물들의 거침없는 행실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놀부·뽕덕어미·괴똥어미 등은 이들과 대조되는 흥부·곽씨부인·이씨부인보다 더 흥미로운 캐릭터로 주목된다. 또한 저부인·뽕덕어미·개똥이·꿈생원·평생원은 계녀가류나 치산가류에 나오는 부지런하고 윤리적인 행위자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각인된다. 놀부의 심술사설, 뽕덕어미의 악행 사설이 점차 확대되고, 괴똥어미의 행실만 따로 떼어 <괴똥전>으로 향유되었던 현상들¹⁾은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뻔한 행태'가 아니라 '특별한 행태'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들 인물 유형이 조선후기의 새로운 인물군상을 대변하는 존재이자, 변화된 세태를 반영한 존재들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문제는 놀부·개똥이·꿈생원·평생원으로 대변되는 남성형과 뽕덕어미(<흥부가>)·저부인·뽕덕어미(<용부

1) 이지영, 「<흥부전>의 '놀부심술사설' 연구」, 『고소설연구』 7, 고소설학회, 1999, 291-317쪽.
 유영대, 「<심청전>의 여성 형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0, 103-121쪽.
 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213-229쪽.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 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문학사학회, 2003, 81-110쪽.
 김석희, 「복선화음가 이본의 계열상과 그 여성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299-345쪽.

가>)·괴퐁어미로 대변되는 여성형 인물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다르게 내려진다는 사실이다. 이들 인물 유형은 모두다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남성형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는 편이다. 즉 남성형 인물의 행위를 억눌린 욕망의 쟁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경제가 우위를 점하게 된 사회적 변화와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유교적 도덕과 인성이 타락하는 세태에 더 주목한다.²⁾ 이런 논의 속에서 이 인물들은 부정적 세태를 온 몸으로 현현한, 비틀어진 인물군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여성형 인물의 욕망 표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출한다. 여성인물의 본능 추구는 남성중심주의적 윤리가 착색되지 않은 인간의 원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이런 인물을 통해 당대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의 부당성을 자각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다.³⁾ <심청가>의 뽕떡어미를 유랑 생활하는 서민으로 추정하면서 이기적이지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인물로 보거나⁴⁾, 거칠지만 건강한 서민의 발랄한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성 일탈형 인물에 대해 자격미달의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쟁취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개인적 욕망의 분출을 중세적 질서에 대한 저항적인 몸짓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요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품

2) 정양, 「심술타령 고」, 『판소리연구』 12, 판소리학회, 2002, 33-55쪽.

강명관, 「우부가 연구」,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5, 105-129쪽.

최기숙,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조선후기 서사 문학의 경제적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81-218쪽.

3) 서영숙, 앞의 논문.

이형래, 「복선화음가의 존재의미와 쟁점적 문제」, 『문창어문논집』 41, 문창어문학회, 2004, 63-84쪽.

4)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5-29쪽.

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유교적 ‘인성’을 닦기 위해 남성과 여성 공히 본능적 욕망을 억압하고 억제해야만 했다. 유교 윤리의 훈습과 단련의 과정에서 남성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조선후기 사대부들이 인간의 타고난 천기를 강조하고 칠정(七情)의 움직임을 주시했던 목적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억압했던 현실에 대한 반동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관점에 의거해 볼 때 여성의 욕망 추구는 중세로부터의 탈주이고, 남성의 욕망 추구는 중세의 파행이라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여성의 욕망 표출 행위는 근대적인 개인의 각성이고, 남성의 욕망 표출 행위는 무정향의 타락이라 볼 수 있는가?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욕망 표출 행위는 진정 중세의 탈주요, 근대를 향한 질주로써 긍정될 성질의 것인가?

궁극적으로 조선후기 남성과 여성의 욕망 추구하고 일탈은 그 성격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연구자들이 남성과 여성의 일탈을 각기 다르게 평가했을 뿐이다. 조선후기 남성과 여성의 ‘욕망’의 본질과 ‘욕망 표현의 욕구’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 욕망의 구체적 내용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일탈형 여성 인물의 욕망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일탈형 여성 인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 질문을 해결하고 난 후에야 일탈형 여성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그 역사적 전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탈형 여성인물의 욕망 충동과 그 성격

<심청전>의 뽕덕어미, <용부가>의 저부인과 뽕덕어미,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 사설은 결혼한 부인들의 ‘나쁜 행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사설들은 인물의 나쁜 형상에만 집중하고 결혼 이전의 행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복선화음가>와 <용부가>는 시집가는 딸을 가르치고, 부인을 경계하기 위한 사설이기 때문에 결혼 이후의 행실만 부각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소설 <심청전>에서도 뽕덕어미가 결혼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행실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 여성인물들은 작품 속에서 그저 ‘저 건너 동네 뽕덕어미 상부(喪夫)하고’ 혹은 ‘그 동네 뽕덕어미라 하는 홀어미’, ‘저 부인’, ‘남문 밖 뽕덕어미’, ‘저 건너 괴똥어미’로 불릴 뿐이다. 서사적 인과 속에 놓여있는 <심청전>의 뽕덕어미도 ‘홀어미’라는 정보 외에 왜 과부가 되었는지 과부로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에 반해 괴똥어미와 대조되는 인물, <복선화음가>의 이씨부인은 “이한림의 증손녀요, 정확사의 외손녀요, 김한림의 증손부”이며 “소학 효경 열녀전을 십여 세에 외워내고, 처신범절 행동거지 침선방적 수놓기도 십여 세에 통달한” 그야말로 훌륭한 가문과 뛰어난 교양의 소유자로 소개된다. 마찬가지로 ‘뽕덕어미’와 대조되는 인물, <심청전>의 곽씨부인은 “그 또한 현찰하여 임사(任似)의 덕과 장강(莊姜)의 고음과 목란(木蘭)의 효행 있어 예기 가례 내칙편과 주남 소남 관저시를 모를 것이 바이없는” 교양으로 무장한 여성으로 표현된다.

<심청전>의 뽕덕어미가 서민 혹은 유랑민이기 때문에 결혼 전의 ‘과거’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는 양반가의 여성임에도 결혼 전의 ‘과거’는 언급되지 않는다. 본 데 없고, 배운 것 없는 막무가내의 인물이므로 가문이나 이력을 들춰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뽕덕어미와 괴똥어미는 애초부터 교양이나 절제와는 담 쌓은 인물인 것이다. 이들의 행악은 타고난 성정에서 연유할 뿐이다. 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용부가>의 화자가 진술한 바, ‘본 데 없이 자라나

서'라는 말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가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인물의 과거를 제거해버린 것은 이들이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었다는 표지이다.

본 데도 없고 배운 바도 없는 이 여성인물들은 모두 부유하고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을 온다. 심봉사도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덕분에 먹고 살만큼 풍족한 상태이고, 괴똥어미의 시가도 “제일처음 시집을 제 가산이 만금이라 마당에 노적이요 너른 광에 금은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다. <용부가>의 저부인과 뽕덕어미의 시집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 행위로 보아 넉넉한 양반가이다. <심청전>의 곽씨부인과 <복선화음가>의 이씨부인이 빈한한 양반가에 시집 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부유한 양반가에 시집온 이 여성 인물들은 하나같이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일삼는다. 여성인물들의 욕망 표현의 양상과 그 성격을 살펴보자.

1) <심청전>의 뽕덕어미 : 식욕, 수면욕, 애욕의 과잉과 가산 탕진

뽕덕어미는 홀로 된 몸으로 먹고살기 힘들자 가세가 넉넉한 심봉사의 처가 된다. 뽕덕어미가 심봉사와 결혼한 이후, 행한 일은 주체할 수 없는 식욕·수면욕·애욕의 발산이었다.

뽕덕어미라 하는 계집이 있어 행실이 괴악한데 심봉사의 가세 넉넉한 줄 알고 자원하고 첩이 되어 심봉사와 사는데 이 계집의 버릇은 아조 인증지말이라 그렇듯 어둔 중에도 심봉사를 더욱 고생되게 가세를 결단내난데 쌀을 주고 엿사먹기 벼를 주고 고기사기 잡곡으로 낭초를 사서 술집에 술사먹기와 이웃집에 밥 부치기 빈 담뱃대 손에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키 이웃집을 욱 잘하고 동무들과 씹 잘하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술 취하면 한밤중의 울

음 울고 동리 남자 유인하기 일 년 삼백 육십 일을 입을 잠시 안 놀리고 집안에 살림살이 흥시감 빨듯 활작 업시하되 (<심청전>)⁵⁾

결혼 후 뽕덕어미가 한 일은 일용할 식량인 쌀과 잡곡으로 엿 사먹고, 고기 사먹고, 술 사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었다. 엿, 고기, 술, 담배 등은 조선시대 평범한 집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그런데 뽕덕어미는 이런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즐기며 식욕을 넘치게 채운다. 더구나 ‘이웃집에 밥 부치기’란 표현에서 짐작되는 바, 뽕덕어미는 조선시대 여성이라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가사(家事)에도 게으르다. 남들 다 손수 해먹는 밥도 짓지 않고, 이웃집에서 밥을 부쳐 먹는 것이다. 뽕덕어미는 ‘일년 삼백 육십 일을 입을 안 놀리고’ 끝없이 식탐을 채우는 소비의 주체로 그려질 뿐이다.

노동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뽕덕어미에게 뒤따라오는 것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의 상징은 오래 잠이듯, 뽕덕어미는 정자 밑에서 낮잠을 즐긴다. 식욕도 수면욕도 조절하거나 참아내지 않는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맘껏 잔다. 식욕과 수면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에만 지극히 충실한 것이 아니다. 감정도 조절하거나 절제하지 않는다. 감정의 충동에 따라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이웃집을 욕하고 성이 나면 싸움질하고 취하면 한 밤중에 운다. 또한 결혼한 여성임에도 애욕의 본능도 숨기거나 절제할 줄 모르고 동네 남자를 유인한다. <심청전>에 그려진 뽕덕어미는 이처럼 소비적이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심술궂고 음란하다.

식욕, 수면욕, 칠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다. 그러나 뽕덕어미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적정 수준을 넘어 쾌락을 향해 질주한다.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욕구과잉 상태를 즐기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

5)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전집』7, 박이정, 1997, 59-60쪽.

하는 뽕덕어미의 질주는 멈추지 않는다. 무절제한 사람은 후회가 없고 치유가 불가능하다.⁶⁾ 결국 뽕덕어미는 심봉사의 가산을 탕진하고, 황봉사를 따라 떠나버린다. 소비와 방탕의 주체인 뽕덕어미는 돈 떨어진 심봉사와 가정을 이룰 수 없다. 뽕덕어미는 한 가정에 안주하지 못한다. 욕망을 채워줄 ‘돈과 남성’을 찾아 길 위를 떠돌 뿐이다.

‘뽕덕어미’가 서민 여성의 힘겨운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지만, 뽕덕어미의 재가는 비슷한 시기의 가사 작품 <덴동어미화전가>의 덴동어미와 비교할 때 다른 지점에 놓인다. 덴동어미는 여러 번 재가했지만 본능적 쾌락을 위해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 덴동어미는 결혼하는 남편마다 병이나 사고로 죽었다. 덴동어미의 재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했던 조선후기 서민 여성의 실존적 선택이었다. 혹독한 ‘운명’에 맞서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덴동어미는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덴동어미와 비교할 때 뽕덕어미는 힘겨운 서민여성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다.

<변강쇠가>의 옹녀도 자신의 애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재가를 거듭하지만, 쾌락을 향해 질주하지는 않는다. 옹녀는 눈이 맞은 변강쇠와 살면서 생활을 위해 애쓴다. 이에 비교해 보면, 뽕덕어미는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강한 서민여성은 아니다. 절제할 수 없는 욕망과 감각의 쾌락을 추구하는 길 위의 여성이다. 이런 욕망은 돈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뽕덕어미는 돈의 위력이 개인의 욕망 충족에 필수적임을 인지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시종일관 비판과 해학, 조롱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뽕덕어미의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태도는 비판의 표적이 되어⁷⁾ 수용자들에게 거부 반응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6) 미셸 푸코 저, 문정자·신은경 공역, 『성의 역사: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 1990, 80쪽.

7) 최기숙, 앞의 논문, 202쪽.

2) <용부가>의 저부인 : 불복종·방탕함과 가정에서의 일탈

<심청전>의 뽕덕어미가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가산을 탕진하는 인물형이라면, <용부가>의 저부인은 ‘시집살이’의 규율과 속박을 거부하는 인물형이다. 저부인은 조선시대의 여성적 일상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다. 저부인은 결혼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겪어내는, ‘시집’이라는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친정에 편지하여 / 시집 흉도 하고 많네 / 시집간 지 석달 만에 / 시집살이
 심하다고 / 게엄스런 시아버니와 / 암특할사 시어머님 / 야의덕이 시누들과
 / 엄수덕이 말동서며 / 요악한 아우동서와 / 여우같은 씨앗년에 / 기세롭다
 남노여비 / 들며나며 흠구덕이 / 여기저기 사설이요 / 구석구석 모함이라
 / 남편이나 믿었드니 /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세라 / 시집살이 못하겠네
 / 간수병이 어디갔노 / 치마쓰고 내닫기와 / 보짐 싸고 도망질의 / 오락가락
 못 견디여 / 승년이나 따라갈까 / 들구경이나 하여보며 / 나물이나 뜯어 불
 가 / 긴 장죽의 벗넘이요 / 문복하기 소일이라 / 겹으로는 설움이요 / 속으로
 는 탄생각의 / 반분대로 일을 삼고 / 털뽀기가 세월이요 / 시부모가 걱정하
 면 / 완악키 말대답이며 / 남편이 사설하면 / 뒤쫓그려 맞닥수라 / 들고나면
 초롱군이라 / 팔자나 고쳐 볼까 / 양반자랑 모두 하며 / 색주가나 하여 볼까
 (<용부가>의 저부인 사설)⁸⁾

저부인은 처음부터 시집에 적응하지 못한다. 저부인은 조선시대의 현숙한 부인이 지켜야 할 소양과 덕목은 하나도 갖추지 않았으며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시집에 들어가 시부모, 시누, 동서들과 생활해야 하는 조선시대의 대가족 제도에 알려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저부인은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친정에 편지해서 시집 흉을 날날이 본다. 저

8) 정재호,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7, 174-179쪽.

부인에게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속박하는 적들이다. 저부인은 이런 적개심과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시부모에게 대들고 남편과 싸운다. 저부인은 감정을 숨기거나 조절하는 법이라곤 없다.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싫으면 싫다고 대응한다. 더구나 시집살이를 거부하고 도망까지 친다.

저부인의 태도는 조선시대의 여성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나쁘다고만 매도하기 어렵다. 시집살이는 일종의 결혼 제도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사회적 요구이다. 당연히 거처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집살이 민요와 규방가사에서 시집살이를 힘겨워 하고 부정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는 인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대의 여성들 대부분은 시집에 적응하지만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실상 <용부가>는 이런 시집살이 민요와 규방가사의 여성들을 부정적 시선으로 수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시선을 제거한 상태로 저부인의 심리를 따져 보면 시집살이에 힘겨워했던 여성 일반의 심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저부인이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식구 흉을 보는 구절들은 시집살이 민요의 내용과 흡사하다. “계엄스런 시아바니와 / 암특할사 시어머님 / 야의 덕이 시누들과 / 엄수덕이 만동서며 / 요약한 아우동서와 / 여우같은 씨앗년에 / 기세롭다 남노여비”와 같은 표현은 시집 식구들을 형상적으로 풍자했던 민요를 차용한 구절이다. 저부인의 이런 태도를 조롱하는 화자는 분명 시집살이 민요의 세계를 풍자적으로 수용한 것임에 틀림없다.⁹⁾

9) 이 내용은 시집살이 민요 중, 친정에 놀러 온 사촌형님이 동생에게 시집살이를 말해주는 대목에 나온다. “시아버니 호랑새요 / 시어머니 꾸중새요 / 동세 하나 할림새요 / 시누 하나 뽕족새요 / 시아지비 뽕중새요 / 남편 하나 미련새요 / 자식 하나 우는 새요 / 나하나만 씹는 샨새”

또한 이런 시집살이 민요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한 사설시조도 있다. “식어마

또한 시집살이 민요 중에 힘겨운 노동과 배고픔 그리고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도망쳐서 중이 된 여성을 그린 노래가 있다. 이 민요는 여성주인공이 시주하러 다니다가 친정식구들과 해후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용부가>의 화자는 이런 시집살이 민요에 등장하는 서민적 여성의 세계를 수용했음에 틀림없다. 시집살이가 싫어 밭집 싸서 도망치고, 승년이나 따라갈까 궁리하는 저부인은 시집에서 탈출하여 중이 된 민요의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시집살이 민요에서는 여성자신이 화자이며 이 여성은 힘겨운 노동과 모진 시집살이를 탄식했다는 것이고, <용부가>는 남성이 화자로, 시집살이에 반항하는 여성을 비판적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용부가>의 화자의 시선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이고, 시집흥을 보고 반항하는 저부인의 태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저부인의 행위를 개인의 각성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들의 논의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집살이에 숨죽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던 여성들의 인간적 본능을 드러내주는 저부인의 행동은 여성적 규범과 속박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 시대의 여성들도 결단코 시집살이를 기쁘고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성 누구에게나 시집살이는 고생스럽고 어렵다. 그렇다고 이 시대의 여성들이 마음대로 시집살이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여성이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에 안착하려면 시집살이는 견뎌 내야 하는 현실이었다. 시집살이에 반항하고 적개심을 표출하는 순간 여성들은 아웃

닌 며느라기 낮바 벽바홀 구루지 마오 / 빗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처은 며느린가 밤나
 모 서근 등걸에 휘초리나니 갖치 알살피신 식아바님 벋 빈 췌동 갖치 되종고신 식어
 마님 삼녀 겨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 갖치 뽕족하신 식누이님 당피가론 밧티 돌피나
 니 갖치 새노란 윗곳 갖튼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 건 밧티 밧곳 갖튼 며느리를
 어딴를 낮바 하시는고”

사이더로서 살아가야 했기에, 적어도 일반적인 여성들은 시집살이를 두려워하고 시집살이의 설움에 힘겨워 해도 시집살이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대신 많은 여성들은 규방가사나 민요 속의 여성들이 시집에 저항하고 시집살이에서 도망칠 때 대리만족하며 심리적 공감을 보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용부가> 안에서는 저부인이 왜 시집식구들과 마찰을 일으키는지 그 동기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더구나 목적도 불분명하다. 시집살이가 싫어 간수병을 기울이고, 치마 쓰고 내닫을 정도였다면 저부인의 결단력과 저항의 강도는 엄청난 것임에 틀림없다. 시집살이에 오죽 적응하기 힘들었으면 자살 결심까지 했겠는가?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저부인의 행위는 비장한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기가 막히다. 맹목적으로 도망을 일삼고, 놀고먹으며 성질만 부린다. 저부인이 하는 짓이라곤 화장하거나 털 뽑고 점치는 일이고, 들로 산으로 긴 장죽을 물고 놀러 다니는 일 뿐이다. 저부인은 힘겨운 집안일과 인간관계는 아랑곳 않은 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뿐이다.

시집살이 민요의 서민여성들에게는 시집살이를 부정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다. 매서운 시집살이 혹은 시집식구들의 학대와 힘겨운 노동,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용부가>의 저부인에게는 가혹한 현실도, 혹독한 인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성에게 자유와 개성을 속박하는 중세의 결혼 제도 자체를 근원적으로 회의하는 태도도 보여주지 않는다. 작품 속의 저부인은 원래부터 성정이 나쁘고 절제가 안 되는 인물이다.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닫힌 세계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본능만을 발산할 뿐이다. 이러한 여성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 본능의 발산은 가정 관리에는 치명적이다. 원인도 목적도 없는 저부인의 행위는 대항이 아니라 개인적 욕망을 위한 일탈로

만 보인다. 저부인의 행로는 분명하다. 팔자를 고치거나 색주가를 차리는 것. 결단코 가정 내에 포획될 수 없는 인물이다.

<용부가>의 화자는 저부인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집살이에 거부감을 갖는 저부인에게 게으름, 방탕, 음란함이란 본능적 일탈을 덧씌워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용부가>의 서술자는 방탕하고 소비적이기만 한 여성은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부인에게서 ‘각성한 근대적 개인’이라는 표지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무정향적 일탈만 보이는 여성에게 중세의 탈주요, 근대의 진입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용부가>의 화자가 보여주는 경계와 비판의 시선은 너무나 완강하다. 각성한 개인의 발견이란 평가를 내려주기에는 저부인은 깨어있지 않다. 시집살이와 결혼생활에 대한 부적응증이 완벽하게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방탕하고 음란한 성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성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내기는 어렵다. 결국 시집에 부적응하는 여성의 실상을 맘껏 조롱하며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3) <용부가>의 뽕덕어미 : 게으름 · 심술궂음 · 음란함과 가정의 몰락

<용부가>의 뽕덕어미는 살림을 못한다. 아니 살림에 취미가 없다. 조선시대 여성이 살림을 못하거나 안하는 것은 가정 관리에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뽕덕어미는 살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옛 사먹고 떡 사먹는 식탐에, 게으름 피기 · 심술부리기 · 음란함으로도 일등이다. <심청전>의 뽕덕어미와 완벽하게 닮아 있다. <용부가>의 뽕덕어미는 <심청전>의 가사적 버전이다.

여기저기 무릎맞춤 / 싸움질로 세월이요 / 나며는 말전주요 / 들며는 음식
공론 / 제조상은 제쳐 놓고 / 불공하기 위업이요 / 무당소경 고흥하여 / 의복

가지 다 내가고 / 남편 모양 볼작시면 / 삼살개의 뒷다리라 / 자식거동 볼작
 시면 / 털벗은 솔개미라 / 옛장수와 떡장수는 / 아기평계 거르지 않고 / 물레
 앞 씨야 앞은 / 선하품의 기지개라 / 이야기책이 소일이요 / 음담패설 세월
 이라 / 이집저집 이간질로 / 모함잡고 똥먹기며 / 인물초인 떨어내며 / 패족
 박이 되었구나 / 세간이 잘라가고 / 걱정은 늘어가며 / 치미는 잘라가고 /
 허리통이 길어간다 / 총업는 현짚신에 / 어린 자식 들쳐 업고 / 혼인장사
 집집마다 / 음식 투심 일을 삼고 / 끈 양식 거울러라 / 한 번 포식 하여보자
 / 아이 싸움 어른 싸움 / 가부지죄로 매맞치고 / 일없이 성을 내여 / 어린
 자식 두다리고 / 씨앗을 무여하여 / 중매아비 원망이라 / 며나리 쫓았으니
 / 아들은 흠아비요 / 딸자식을 데려오니 / 무례무의 음란이요 / 두 손벽 두드
 리며 / 방성대곡 해괴하다 / 무슨 꼴의 생투기로 / 머리 싸고 드러놓고 /
 간부 달고 달아나서 / 관비정숙 흐뭇지다(<용부가>의 뽕떡어미 사설)¹⁰⁾

<용부가>의 뽕떡어미도 <심청전>의 뽕떡어미처럼 다분히 소비적이다. 의복가지 다 내가서 불공하고 굷하고 점치거나, 옛 사먹고 떡 사먹거나, 이야기책과 음담패설로 소일한다. 이런 행위는 모두 돈과 시간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뽕떡어미는 돈과 시간으로 자신의 감각적 쾌락만을 채운다. 감각적 쾌락에 매달리다보니 남의 경조사에 가서 음식에 욕심내고, 끈 양식으로도 포식하려는 식탐을 드러낸다. 본능적 충동이 지나쳐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뽕떡어미는 가족을 위해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생산적인 일엔 하냥 게으름을 피운다. 자신은 물론 남편과 자식들의 입성은 남루하기 짝이 없고, 물레 앞에서 하품한다. 살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성향에 물든 뽕떡어미는 살림에 취미가 없는 것이다. 살림을 내팽개치고 소비만 하는 전형을 뽕떡어미는 보여준다.

10) 정재호,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6, 174-179쪽.

게으르고 소비적인 여성은 반드시 고집스럽고 심술궂으며 음란하다. <용부가>의 화자가 규정하는 여성상이다. 뽕덕어미도 예외가 아니다. 식욕을 절제할 줄 모르는 인간은 다른 본능도 절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나쁜 성질과 음란함이 추가된다. 감정 절제도 안 되고 애욕의 본능도 조절하지 못한다.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싸우고 자식들을 때리고 이유 없이 성내고 온갖 싸움에 다 끼어든다. 거기에 간부 달고 달아나기 일쑤요, 죄 짓기 일쑤이다. 이런 여성은 내 집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안도 깨뜨린다. 뽕덕어미는 소비적이고 게으르고 심술궂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나쁜 여성의 전형을 다 보여준다.

뽕덕어미가 서술자로부터 경계의 인물이 된 이유는 식탐이 지나쳐 소비적이기만 하고, 욕심쟁이에 심술궂기까지 한 데 생산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뽕덕어미는 동정의 여지를 만들어줄 수 없도록 모든 욕구에 있어서 과잉 상태에다 소비적이기에 도저히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술궂지만 생산적이기라도 하다면, 그렇게까지 비난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뽕덕어미는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하게 일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여성에게 공감을 보낼 수는 없다. 뽕덕어미의 일탈에 박수를 칠 수 없는 이유는 방향이 없는 일탈이기 때문이다. 어떤 전망도 없이 막장 인생을 향해 질주해 가는 뽕덕어미에게 동일시를 느낄 수 있는가? 각성한 여성이라고 환호해 줄 수 있는가? 일탈하는 여성 이미지에 악덕 이미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용부가>의 화자는 ‘풍자와 경계’라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소비성과 게으름과 심술궂음은 하나로 연결된다. 식욕, 수면욕, 칠정의 남용은 분리되지 않고 한 궤도를 그린다. ‘탐욕과 심술’은 뽕덕어미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한다. 뽕덕어미는 그래서 나쁜 인간이요, 뽕덕어미의 행위는 악행이 되는 것이다.

4)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 : 불경·게으름·반윤리성과 가정의 환난(患難)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는 <심청전>의 뽕떡어미나 <용부가>의 저부인·뽕떡어미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이해 가능한 인물형이다. 괴똥어미는 앞서의 인물들처럼 그렇게까지 방탕하고 그렇게까지 음란한 인물로 그려지진 않는다. 괴똥어미는 지나치게 방탕하고 음란하진 않지만, 조선시대 내척에서 규정한 여성의 처신과는 정반대의 행동만 일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괴똥어미 또한 가정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데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

<복선화음가>에서 괴똥어미는 현숙하고 근면하며 치산(治産)에 성공해 가문을 빛낸 ‘이씨부인’과 대조적인 인물로 배치된다. 이씨부인은 가난하고 쇠락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양반 부녀의 체면을 벗어던지고 부지런히 일해 마침내 부귀를 이루고 남편과 아들을 성공시킨 인물이다.¹¹⁾ 괴똥어미는 이씨부인과는 정반대편에 자리한다. 괴똥어미는 가산이 풍족한 집안에 시집왔으나 게으르고 소비적이고 쾌악한 성정으로 집안을 말아먹는 인물이다. 이씨부인과 괴똥어미의 대조적인 행위를 통해 볼 때, <복선화음가>는 치산을 통한 가문 일으키기를 결혼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국면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¹²⁾ 여성에게 주어진 미덕은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경계의 대상이 된다.

신행하여 오는 날에 / 가마문에 나서면서 / 눈을 들어 사방 살펴 / 기침을

11) 이씨부인 사설의 성격은 길진숙, 「여성으로 말하기, 그 안과 밖-〈복선화음가의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참조(『고전시가 읽어 읽기』 하, 태학사, 2003, 342-361쪽.)

12) 이동연, 「조선후기 여성 치산과 <복선화음가>」, 『고전여성문학연구』4, 2002, 288-289쪽.

크게 하니 / 신부행실 바이 없다 / 차담상에 허다 음식 / 생을 먹기 고이하다
 / 무슨 배가 그리 고파 / 국 마시고 떡을 먹노라 / 좌중 부녀 어이 알아 /
 떡 조각을 집어 들고 / 이도 주고 저도 주니 / 새댁 행실 전혀 없다 / 입구멍
 이 침이 흘러 / 연지분도 간데없고 / 아까올사 대단치마 / 어롱더롱 흉악하
 다 / 신부 행동 그러하니 / 뉘 아니 외면하리 / 삼일을 지낸 후에 / 형용도
 기기하다 / 백주의 낮잠 자기 / 혼자 앉아 군소리며 / 둘이 앉아 흥보기와
 / 문틈으로 손보기며 / 담에 올라 시비구경 / 어른 말씀 초달기와 / 금강산
 어찌 알고 / 구경하니 둘째로다 / 기억니은 모르거든 / 책을 어찌 들고 앉노
 / 앓음앓음 용열하고 / 걸음걸이 망측하다 / 달음박질 하는 때의 / 너털웃음
 무슨 일고 / 치마꼬리 희여지고 / 비너 빠져 개가 문다 / 허리띠 어데 두고
 / 붉은 허리 드러내노 / 어른 걱정 하올적에 / 족박함박 드던지며 / 성내여
 솟대 닿기 / 독살 부러 그릇 깨기 / 등잔 뒤에 남 보기며 / 가만가만 말도깨
 와 / 아니한 말 지어내어 / 일가간에 이간질과 / 좋은 물건 잠깐 보면 / 도적
 하기 여사로다 / 그중에 행실 보소 / 악한 사람 부동하야 / 착한 사람 흥보기
 와 / 지 처신 그러하기 / 남편인들 귀할소냐 / 금실조차 살풀이며 / 무병하라
 푸닥거리 / 의복주고 금전주어 / 아들 낳고 부귀하기 / 정성껏 빌어보소 /
 산에 올라 산지하고 / 절에 가서 불공한들 / 지 심사 그러하니 / 귀신인들
 도울소냐 / 우환이 연접하니 / 사망인들 없을소냐(<복선화음가>)¹³⁾

신행 온 첫 날부터 괴똥어미의 행동은 문제적이다. 처음 시가에 들어서
 는 신부가 분방하게 처신하며 조심스러움도 거리낌도 없다. 눈을 들어 사
 방을 살피고, 크게 기침하고, 소리내어 먹고, 욕심껏 먹고, 침까지 흘리며
 먹는다. 지나친 식탐으로 연지분도 지워지고, 음식물도 대단치마에 흘린
 다. 더구나 새색시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음식까지 나누어준다. 좋게 보
 면 활달하고 사교성도 있는 편이지만, 나쁘게 보면 조신한 데라곤 전혀
 없는 행동이다. 오늘날의 눈으로는 활달하고 거침없고 건강한 여성으로

13)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34-36쪽.

볼 수 있지만,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신부의 처신으로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현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제가 없다. 괴뽕어미는 조신하지 않고, 불경스럽고, 게으르다.

괴뽕어미의 문제적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결혼한 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덕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괴뽕어미는 “가산이 만금이라 마당에 노적이요 너른 광에 금은”으로 소문난 집안에 시집을 와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돈과 시간의 여유 때문인지 괴뽕어미는 살림에는 관심이 없다. 재산을 유지하는 일에도, 살림살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옷매무새조차 정돈하지 못할 정도로 칠칠맞기 그치지 않는다. 치마는 났고, 비녀는 빠지고 허리를 다 드러내 보일 정도이다. 이 처신만 봐도 가족들을 챙길 리 만무함을 짐작할 수 있다.

괴뽕어미가 결혼해서 한 일을 보자. 낮잠 자기, 흥보기, 문틈으로 손님 보기, 싸움 구경하기, 금강산 구경하기, 글자도 모르면서 책 들고 있기, 어른 꾸중에 성내기, 이간질하기, 도적질하기, 무당 푸닥거리, 불공 들이기 등 양반가의 부녀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가면서 저지른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양반가의 부녀자이지만 주로 하는 일이 낮잠 자기, 금강산 구경하기, 책 들고 있기 등 게으르고 소비적인 행태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착한 사람 흥보기, 이간질, 쪽박 함박 던지며 성질부리기, 도적질하기 등 쾌락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쾌락스런 여성에게는 <복선화음가>의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대로 복이 이르지 않고, 반드시 화가 미친다. 괴뽕어미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낳지 못했고, 집안에는 우환이 생기고 사망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괴뽕어미를 통해 부유했던 집안이 게으르고 쾌락한 여성으로 인해 몰락한다는 ‘화음(禍淫)’의 논리가 입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불경스럽고 게으르고 반윤리적인 여성을 징치하는 메시지가 매우 살벌하다.

우리가 괴똥어미의 행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식탐을 부리고, 조심성 없고, 게으르고, 칠칠맞은 행위들과 심술궂고 도적질하는 반윤리적 행위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복선화음가>의 작자는 여성적 삶의 일탈과 도덕적 결함을 등치시켜 놓음으로써 반윤리적이고 비여성적인 행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각인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는 괴똥어미의 인간적인 소박함과 발랄함에 공감하기 어렵게 된다. 화자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반윤리적 본성’이라는 장치로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현숙하지 않고, 게으르고 소비적이며 감정을 제멋대로 표현하고, 성질 나쁘고 심술궂고 도적질하는 등 총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여성에게 일체감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쾌악스런 행위 뒤에 오는 불행한 결과 또한 절대 이런 여성에게 동조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였다.

독자들은 남성적 윤리에 착색되지 않은 괴똥어미의 삶에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¹⁴⁾ 혹은 괴똥어미의 과감하고 거침없는 행동에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며 일종의 쾌감을 느꼈다기보다는,¹⁵⁾ 인간적 우월감을 느끼며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했던 것은 아닐까? 독자들은 우스꽝스럽고 비천하며 쾌악한 괴똥어미의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지 그 행위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거침없는 행동엔 공감하고 반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식의 선택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복선화음가>에서 인간적 본능에 의해 사는 것과 반윤리적인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견고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에서 이런 화자의 메시지는 괴똥어미라는 개인적 인물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화자는 독자들에게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 독자들은 괴똥어미의 비천한 행위를 통해 인간적 우월감을

14) 이형래, 앞의 논문, 19쪽.

15) 서영숙, 앞의 논문, 220쪽.

즐기고 괴똥어미를 맘껏 비난하면서 여성적 삶의 규율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독자들은 괴똥어미를 통해 부귀와 빈천은, 가문의 몰락과 흥기는 여성에게 달려있음을 입체적으로 체득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후기 여성에 대한 시선

살펴본 바, <심청전>의 뽕떡어미, <용부가>의 저부인·뽕떡어미,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는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이들의 처지와 행동거지는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각 편들은 나쁜 행위를 구성하는 조목에서 조금씩 편차를 보이지만, 그 중심은 게으르고 소비적이며 방탕하여 생산적인 일이나 살림 혹은 가정의 인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가정을 깨거나 몰락시키는 행위에 두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설이 소설 장르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가사 장르로 진술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뽕떡어미와 괴똥어미 관련 사설들은 사건의 인과적 맥락 없이 시집간 부인이 저지르는 '나쁜 행위'만을 열거한다.¹⁶⁾ <심청전>은 소설 장르임에도 뽕떡어미 사설 부분은 가사 장르의 진술 방식과 비슷하다. 행실 묘사에 대한 다소의 가감은 있지만, 이야기의 필연성과 그럴 법함을 위해 사건의 인과나 갈등과 같은 서사적 요소를 강화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소설 <심청전>에서도 뽕떡어미가 왜 그런 나쁜 행실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추정하기 힘들다. 물론 뽕떡어미가 소설상 주변적인 인물이고, 심봉사를 몰락시키

16) 하나의 사설이 여러 이본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뽕떡어미 사설이 애초에 가사 장르로 시작해서 판소리 <심청가>에 삽입된 것인지 그 선후는 분명치 않지만 뽕떡어미형 가사가 유행하다가 판소리 <심청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가사가 19세기에 형성되었으며, 판소리 <심청가>에 뽕떡어미 사설이 등장한 것도 <심청가>의 형성기를 지나서였다고 한다. (정하영, 유영대의 앞의 논문 참조)

는 역할을 위해 잠깐 등장한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설이 확장될 때도 서사적 고려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소설의 작자는 뽕덕어미 사설에 노정된 서사의 결핍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런 행실을 하게 된 이유도, 고민도, 갈등도, 후회도 굳이 덧붙이지 않는다. 소설장르에서든, 가사 장르에서든 이 여성인물들은 어떤 여지도 없이 부정적으로 그려질 뿐이다. 사건의 원인도 목적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진술방식은 여성인물들을 이해하려는 시선보다는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팽배해있다는 반증이다.

텍스트 내에 그려진 여성은 유교적 관점에서만 자격미달이 아니라, 근대적 관점에서도 철저히 자격미달이다. 기존 사회 규범에 대한 저항이요, 반항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들 여성의 행위는 문제가 많다. 맹목적인 쾌락의 추구하고 타락의 길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다 무정향적인 일탈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방탕한 소비생활, 게으름, 감정의 무차별적 발산은 정상적 법도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맹목적 상태에 빠지면 치유도 불가능하다. 제어가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과 쾌락 활동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는 삶이 탄력적 삶이다.

진정 중세의 탈주라고 해석하거나 개인적 각성이라고 판정하려면, 적어도 이들 인물이 본능적 욕구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해주거나, 조선후기의 가족 제도에 균열을 만들거나, 가족 제도를 벗어난 새로운 인간 유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들에겐 이런 역사적 전망도 없고, 실존적 자각도 없다. 따라서 이런 일탈형 여성인물의 행위를 근대적 개인의 각성이나 남성적 윤리에 침윤되지 않은 인간적이고 본성적인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은 텍스트 내에 그려진 여성인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 바깥의 여성, 혹은 전위적 여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욕망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다. 뽕덕어미나 괴똥어미는 작품

안에 창조된 허구적인 인물이다. <심청전>·<용부가>·<복선화음가>의 텍스트 내에 형상화된 여성인물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시대를 앞서가거나, 전위적이라기보다는 납득하기 힘든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심청전>·<용부가>·<복선화음가>에서는 악인형 여성인물의 나쁜 행위만 줄줄이 강조하고, 여성인물의 행위에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바라보는 텍스트 내의 시선도, 이들을 창조한 작자의 시선도 부정적일 뿐이었다. 소설 장르에서든 가사 장르에서든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이유는 텍스트의 작자와 독자가 여성인물의 일탈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상 식탐 많고 소비적 성향의 여성이 반드시 성질 나쁘고 음란하란 법은 없다. 또한 시집 흉을 보고, 시집 식구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여성이 반드시 방탕하란 법은 없다. 이들 여성에게 부여된 다른 이미지들도 다 마찬가지로이다. 게으른 사람이 고집스럽고 심술 사나운 성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심청전>·<용부가>·<복선화음가>의 작자와 독자들은 이들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았다. 가산을 탕진하고 시집가문에 융합되지 못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여성은 본성도 고집스럽고 심술 사납고 음란하고 식탐이 많고 반사회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하늘도 재앙을 내린다. 반일상적으로, 반윤리적으로 살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믿음은 본능에 민감하고 소비적이며 게으른 여성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시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완벽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작자와 독자들은 여성적 일상으로부터의 탈주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탈형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문학작품 내에서 허구적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일탈형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인 것이었다.

다음에 제시된 인용문은 이덕무가 쓴 「사소절」¹⁷⁾ 중 부인을 경계하는 말들이다. 이를 보면 당대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부인이 경계할 점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알 수 있다.

① · 표독스런 부인은 한 가지의 조그마한 분한 일이 있으면 원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울어대고, 울어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통곡하며 심지어는 손바닥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늘에 호소하고 귀신에 저주하는 등 못할 짓이 없기까지 한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다. 그 일은 오로지 가장이 나약하여 잘 교도하지 못해서 그 표독함을 길러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속담에 “자식은 어릴 때 가르치고, 부인은 갓 시집왔을 때 가르쳐야 한다.”하였다.(부의:성행, 117쪽)

· 남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어 그 화를 죄없는 자녀들에게 옮겨 마구 때리고 쥐어박으며 기물을 부수고 문짝을 치는 등 그 독을 부리니 악독한 부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부의:성행, 118쪽)

·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남의 말을 들으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어른애를 따지지 않고 발끈 성을 내어 낮빛을 붉히며 말을 가리지 않고 마구 지껄이니, 이것은 모두 같상하지 못한 형상이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다. 그 양화가 남편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일찍 죽거나, 일찍 과부가 되거나, 자녀를 생육하지 못하거나 한다.(부의:성행, 119쪽)

· 언어에서나 편지에서 문자를 즐겨 쓰는 것은 단아하고 간명한 일이 아니다. 어떤 부인은 잠시도 설새없이 계속 말을 늘어놓으며 손을 흔들고 혀를 내밀면서 속말까지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현숙한 부인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다.(부의:언어, 122쪽)

· 말하기도 전에 웃거나 웃음소리가 요란한 것은 중심이 썩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망령되이 말하거나 웃지 않아야 올바른 부인의 행실인 것이다. 해학과 웃음을 잘하면 방탕한 행동에 가깝다.(부의:동지,

17)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청장관전서』 6, 서울출판사, 1980, 114-161쪽.

132쪽)

· 이웃집을 엿보아서는 안되고 귀를 벽에 대고 손님들의 담소하는 소리를 엿들어서도 안된다. 만일 음담패설을 듣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부의:동지, 134쪽)

· 무릇 혼인 연회에 갔을 때는 수줍어하지 말고 교만떨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를 내놓고 웃지도 말고 손을 흔들며 말하지도 말라. 또는 떡이나 고기를 방자하게 먹지도 말라. 또는 머리를 떨어뜨려 근심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엄격한 얼굴을 지어 노여움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며 자리를 넘어 어지럽게 걸어나니지 말라.(부의:동지, 136쪽)

② · 상치쌈을 즐겨먹고 하루 걸러 세수도 안고 머리도 안 빗으며, 이야기 책을 읽다가 낮잠을 자고 어린 계집종이 도둑질을 해도 막연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게으른 부인이다.(부의:성행, 119쪽)

· 잠을 즐겨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인의 나쁜 행실이니, 규중의 의범이 무너지고 가정의 일이 망쳐지는 것은 게으른 부인의 죄이다.(부의:동지, 133쪽)

· 언문으로 번역한 이야기책을 탐독하여 가사를 방치하거나 여자가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심지어 돈을 주고 빌어보는 등 거기에 취미를 붙여 가산을 파탄하는 자까지 있다. 또는 그 내용이 모두 투기하고 음란한 일이므로 부인의 방탕함이 혹 그것에 연유하기도 하니, 간교한 무리들이 요염하고 괴이한 일을 늘어놓아 선망하는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는가?(부의:사물, 161쪽)

· 떡을 즐겨 사 먹는 것은 집안을 망칠 징조다. 제기까지 전당잡히게 되면 자녀들이 본받는다.(부의:의복, 130쪽)

·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는 먼저 음식 탐내는 것을 금해야 한다. 딸의 경우는 더욱 조금도 용서해주어서는 안된다. 음식을 탐내게 되면 정해 감적 등 모든 병이 생길 뿐 아니라, 그 탐욕으로 인하여 사치할 마음이 생기고 사치

로 인하여 도둑의 마음이 생기고 도둑의 마음으로 인하여 사나운 마음이 생긴다. 음식을 탐내는 부녀가 남의 집을 망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부의:동지, 138쪽)

· 요즈음 풍속에는 서울의 부인들은 베 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대부의 부인들은 밥 짓는 것을 알지 못하니, 모두 비루한 풍습이다. 베 짜고 밥 짓는 일을 수척로 생각하니, 이들을 부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부의:의복, 131쪽)

· 고요히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나들이를 좋아하고 또는 구경하기를 즐기거나 얼굴을 드러내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 폐단이 역시 크다.

(부의:동지, 133쪽)

· 세상에는 관료나 절에 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가정의 가법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다.(부의:동지, 134쪽)

③· 남자의 옷을 빨았는데도 때가 아직 남아 있고 꿰맨 곳이 터지고, 풀찌꺼기가 붙어있고, 다리미불에 구멍이 나고, 구겨지거나 얼룩지고 넓고 좁은 척도가 없는 것은 모두 부인의 책임이다. 이상의 일은 사치를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곧 공력을 들이게 하려는 것이다.(부의:의복, 125쪽)

· 웬만한 병이 있을 때에는 머리 빗고 닦 씻는 일을 폐지해서는 안되며 비록 가난하더라도 옷은 반드시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한다. 부인은 단정하고 정결함을 귀히 여기는 것이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화장을 하고 고운 복장을 하는 자는 요사스러운 부인이요, 머리털이 엉크러지고 얼굴에 때가 있는 자는 게으른 여자다.(부의:의복, 125쪽)

· 옷고름과 치마끈을 풀어놓고 죄어 매지 않은 것을 창피(昌披)라고 한다.(부의:의복, 126쪽)

이덕무가 세세하게 경계하고 비판하는 부인의 행위들은 전혀 낯설지 않다. <심청전>, <용부가>, <복선화음가>에서 형상화된 여성들의 행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18세기 선비, 이덕무는 소리치고 원망하고 성질부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고 크게 웃고 크게 우는 행동들, 가산

을 팔아 이야기책 읽고 제기까지 팔아 떡 사먹고 음식 욕심내고 나들이와 구경을 좋아하고 절에 가서 밤새며 베 짜기와 밥 짓기를 싫어하는 행위들, 자신이나 식구들을 단정치 못한 옷매무새로 다니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적 형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덕무는 소설과 가사의 작자와 독자들이 가진 신념 즉 이런 부정적 형상을 가진 자는 악독하고 사나우며 도둑의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집안을 망치고 화가 미치리라는 신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당대의 선비들은 가정적 일상에서 일탈하고 여성의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적 시선을 지녔던 것이다.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당대 선비 집안의 현실에 맞는 세세한 윤리 규범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인의 윤리를 제시하는 항목에서도 당대의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 이를 보면 조선후기에 시집 위주의 결혼 제도에 회의를 품고 저항했던 여성들이 있을 수 있고, 시집살이에서 도망친 여성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화폐의 소비적 본질을 일찌감치 깨닫고 ‘소비의 주체’로 시대를 앞서 나갔던 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적인 일보다는 ‘독서’와 ‘유람’과 같은 남성적인 일에 더 매력을 느끼고 이를 실현한 여성들도 있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여성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움직임은 시대를 앞서나가는 흐름으로 의미가 남다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대 양반가 남성과 여성들이 이런 새로운 인간형을 긍정하고, 이런 인간 군상을 새롭게 창조했으리라 보는 것은 우리들의 착오이다. 특히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런 삶을 꿈꾸었으리라고 보는 것도 현대의 우리들의 시각일 뿐이다. 이덕무의 「사소절」을 보면 여성이 소비의 주체가 되고, 가사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 여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런 여성들을 새로운 인물형으로 의미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반 남성도, 양반 여성들도 이런 세태를 비판할 뿐이다.

이데올로기는 견고하다. 여성들을 가정의 규율과 속박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잘 정돈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은 식욕, 수면욕, 칠정의 모든 본능을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뺨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완벽한 악행과 불행은 “결혼한 여성들은 현숙하고 조신하고 부지런하며 감각적 쾌락에 눈 돌려서는 안되며 가정 경제를 책임져서 가문을 빛내야 한다”는 여성적 미덕을 각인시켜 주기 위한 부정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텍스트 내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한 중심적 가치는 가정의 흥기와 가문의 회복이었다.

이들 텍스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을 가정의 몰락과 번성의 중심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탈형 인물군상에서 짚어내야 할 지점은 가정 경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로 모아지는 현상이며,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는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점이다. 여범(女範)이나 계녀가에서 여성의 역할은 시부모를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받들고, 손님을 잘 접대하고, 집안 살림을 잘 일구는 데 있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가족 간의 인화에 힘쓰는 것이 여성의 역할임에는 틀림없지만, 가정의 유지 여부가 여성에게 달려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심청전><용부가><복선화음가>의 여성들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주체로 떠오른 것이다. 이 작품들이 새로운 건, 그리고 이 작품의 여성인물이 새로운 건 그 행위가 혁명적이고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이 살림을 책임지는 실질적 가장임을, 가문의 화평과 영광은 여성의 근면함과 살림 솜씨에 달려있음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들은 가정 경제를 책임져 부귀를 이루는 여성을 현부(賢婦)로 보고, 살림을 도외시하여 가정을 몰락시키는 여성을 악처(惡妻)로 보는 흐름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텍스트의 등장인물은 일탈형 여성 인물의 위상이 커져서가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데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된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왜 조선후기에 와서 여성의 가정 내 위상이 중시되었는가이다. 그리고 가정을 흥기시키거나 몰락시키는 주체를 여성으로 보는 이 시각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난한 선비집안의 부인들에게 펼쳐진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음 글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옛날에 원헌이 “가난한 것이지 병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최근 세상의 가난한 선비 집안의 부인네들에게는 가난이 바로 병이요, 병이 바로 가난이다. 가난이라는 병이 단단히 엉겨 붙어 벗어내고 떼어 버릴 길이 없어, 집집마다 똑같은 증세요, 사람마다 매한가지 빌미이다. 왕왕 진찰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도, 가려서 취해 쓸만한 묘한 약방문이 없으며, 이와 같은 묘한 약방문이 있어 가려서 취해 쓴다 한들 또한 국의(國醫)가 없어 처방을 낼 수가 없다. 엽전 꿰미가 관복에 수놓은 이무기가 서린 것 같고, 상자를 열면 베와 비단이요, 쌀과 곡식이 창고에 가득 들어오면, 손으로 한번 어루만지기만 해도 고통이 씻은 듯 가셔 버리고, 눈을 들어 한번 보기만 해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구미가 돌아와서, 죽다가도 되살아나니 이것이 바로 최상의 약이다. 사슴 머리에서 잘라 낸 녹용과 갓난애만 한 신비한 인삼으로도 이런 부인네를 낫게 하려면 마치 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것은 약왕보살(藥王菩薩)의 구고진경(救苦眞經)에서 나온 약방문이다.¹⁸⁾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꿈꾸는 현실이 뽕떡어미나 괴똥어미의 삶일 수 있을까? 아마도 이씨부인이 일궈낸 그 상상의 풍요와 가문의 번영이 이

18) 이재성(저), 신호열·김명호(역), 『만형수 공인 이씨 묘지명』, 『연암집』 상, 보리출판사, 2007, 337-338쪽.

시대 양반가 여성들이 꿈꾸는 현실이었으리라. 조선후기 가난한 양반가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선비의 부인들이 온 몸으로 가난에 대항해야 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살림을 윤택하게 하여 남편과 자식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몫은 오롯이 여성들의 몫이었다. 여성 치부담(致富談)이 양산되고, 치부가 현부(賢婦)의 상징이 되는 사회가 조선후기의 현실이었다.¹⁹⁾ 여성의 미덕을 치산과 가문 유지에 두면서, 소비적이고 게으른 여성을 본성적으로 나쁜 여성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반가 여성들이 걸어야 할 길은 뺨덕어미나 괴똥어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꼭씨부인’이나 ‘이씨부인’처럼 사는 것이다. 더구나 가난한 선비의 부인에게는 가문의 풍요와 번성이 내 삶의 성공인 것이다. <북선화음가>의 이씨부인이 양반가 여성으로 체면까지 내던지면서 만들어낸 풍족한 살림은 이 시대 여성들의 꿈이었다. 이 풍요로운 살림을 바탕으로 가문의 영광이 도래하는 것이다.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여성들은 가정을 지켜내는 유일한 힘이자 원천이니, 가정과 여성의 관계는 더욱욱 견고하게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 스스로도 ‘가정의 신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가정이 삶의 중심이요, 실존인 여성들에게 뺨덕어미와 괴똥어미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현숙하게 살아도 가정을 지킬지 말지 하는 위기 속에 처한 가난한 선비의 부인들에게 뺨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삶은 그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대 양반 여성들은 중세적 가정 혹은 가문으로부터 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가정관리’의 논리 안에 갇히게

19) 이동연, 앞의 논문, 291쪽.

최기숙, 앞의 논문, 200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다. 가정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가정의 살림과 가정 내의 인간관계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던 것이다. 이 말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성이 깊어져야 할 생활의 무게가 커졌다는 의미이다. 여성이 일궈놓은 윤택한 살림을 바탕으로 가문의 유지와 성공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소비의 주체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한 경계는 그 강도가 더 커졌던 것이다. 단순히 시집살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만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다. 궁극적인 시선은 소비하고 방탕하고 게을러서 가정 경제에 혹은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여성들에게 주어진다. 가정의 유지와 번성의 많은 몫이 여성에게 주어진 시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에서는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여성을 가정 경제의 주체로서 몰아가는 세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문학작품을 통해 시대의식을 알려면 텍스트의 현실을 전달해야지, 텍스트 외부의 욕망을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심청전>·<용부가>·<복선화음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해 다시 검토하였다. 우리가 읽고 알려야 할 점은 텍스트 내에서 여성인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이들을 바라보는 텍스트 내의 시선과 인식이 무엇이며, 그런 시선이 당대인의 시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이다.

<홍부전>의 놀부와 <우부가>의 꿈생원, 개똥이, 평생원으로 대변되는 일탈형 남성인물들의 행위를 중세의 탈주 내지는 근대로의 진입으로 보지 않았듯이, <심청전>의 뽕덕어미와 <용부가>의 저부인·뽕덕어미 그

리고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로 형상화된 일탈형 여성인물들의 행위도 중세의 탈주나 근대로의 진입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일탈형 남성인물들에 대한 텍스트 내의 형상과 인식은 부정적이다.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남성형 인물들은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다하는 부정적 인물이다. <홍부전>과 <우부가>의 작자와 독자는 이런 인물에 대해 결코 긍정하지 않은 시선을 보여준다. 돈을 독점하고 돈에 집착하는 인물형들에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술궂음, 주색잡기와 같은 방탕함, 가정을 돌보지 않을뿐더러 자식까지 팔아먹는 패륜 등등의 윤리적 가치를 결합시켰던 것이다.

일탈형 여성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텍스트의 작자와 독자는 여성적 일상의 일탈과 감각적 쾌락을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의 형상과 이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못했다. 가정 밖으로 탈출하려는 여성과 소비적 쾌락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 행위들을 덧씌움으로서 당대의 가정윤리와 속박을 더욱 견고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개인의 각성을 보여주는 여성 형상은 이들 일탈형 여성인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여성을 찾으려면 다른 텍스트를 읽어야 할 것이다. 일탈형 여성인물을 통해서도 당대인들이 보여준 여성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이고 완강한 인식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명관, 「우부가 연구」,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5, 462-488쪽.
 강명관, 「가부장제의 완성과 <복선화음가>」, 『코기토』6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105-129쪽.

- 길진숙, 「여성으로 말하기, 그 안과 밖-〈복선화음가〉의 여성화자를 중심으로-, 『고전시가 읽어 읽기』 하, 태학사, 2003, 342-361쪽.
- 김석희, 「복선화음가 이본의 계열상과 그 여성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299-345쪽.
- 김용철, 「〈우부가〉:부정적 경제 영웅의 성립과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12, 민족문학사학회, 1998, 203-238쪽.
- 미셸 푸코 저, 문정자·신은경 공역, 『성의 역사 :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 1990.
- 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213-229쪽.
-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 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문학사학회, 2003, 81-110쪽.
- 유영대, 「〈심청전〉의 여성 형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03-122쪽.
- 이동연, 「조선후기 여성 치산과 〈복선화음가〉」, 『고전여성문학연구』, 2002, 285-312쪽.
- 이덕무,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청장관전서』, 서울출판사, 1980.
- 박지원(저), 신호열·김명호(역), 『연암집』, 보리출판사, 2007.
- 이지영, 「〈홍부전〉의 ‘놀부심술사설’ 연구」, 『고소설연구』 7, 고소설학회, 1999, 281-317쪽.
- 이형래, 「복선화음가의 존재의미와 쟁점적 문제」, 『문창어문논집』 41, 문창어문학회, 2004, 63-84쪽.
- 장정수, 「복선화음가 연구-여성형상과 치산의 의미를 중심으로」,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287-312쪽.
- 정양, 「심술타령고」, 『판소리연구』 12, 판소리학회, 2002, 33-55쪽.
-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5-29쪽.
- 최기숙,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조선후기 서사 문학의 경제적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81-218쪽.
- 한창훈, 「고전문학 감상 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상상력의 역할에 관한 시론-〈우부가〉〈용부가〉의 풍자적 성격과 그 해석을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265-288쪽.

ABSTRACT

The Deviant Behavior Character of Paengduk-Umi (뺨덕어미) & Geitong-Umi(괴똥어미)

Kil, Jin-Sook

This essay inquire into the deviation and that character of Paengduk-Umi (뺨덕어미) & Geitong-Umi(괴똥어미) who is representative of a new man's character, who influenced the prevailing state of society.

Simchungga(〈심청가〉), Yongbuga(〈용부가〉), Boksunwhaumga(〈복선화음가〉)'s bad type women departed from women's reality. They refuse social, familial cannon and restraint that oppressed an instinct of man. But they were not manifested an instinct in the raw. They only gave off an intemperate wants. They not only tumbled to a marriage system but also did the immoral acts. They were avaricious, lazy, lewd, and used wastefully. Their women not leaded a stirring life, only them's daily life as a consumer and had enjoyment.

Simchungga(〈심청가〉), Yongbuga(〈용부가〉), Boksunwhaumga(〈복선화음가〉)'s writers and readers keep watch and ward this dad type women. They stood no the wasteful and lazy women. That writers and readers not go through leg bail from women's daily life. They thought that women must be wise and virtuous, that women must be diligent, that women must rise household economy from poverty. One side people criticize women as the subject of consumption but then cage in the house women as the subject of production.

Key Words the latter peorid of Joseon, the deviant type of women's character, Paengduk-Umi(뺨덕어미), Jubuin(저부인), Geitong-Umi(괴똥어미), desire, instinct, deviation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